III 2023년의 도전 과제

○ 2022년의 경험은 지급여력이 충분한 보험회사라도 자산 또는 부채, 또는 자산과 부채에서 동시에 유동성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줌

- 2022년 발생한 유동성 부족은 시장금리의 급등에서 촉발되었으며, 금리 급등에 따른 지급보험금의 급증으로 다수 보험회사가 지급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유동성 부족이 발생함
- 이에 보험회사는 채권 매도, 환매조건부채권매매(RP) 등 단기 차입과 일시납 저축성보험 판매를 통해 유동성 확보에 주력함

○ 2022년의 유동성 부족은 유동성리스크 관리가 현금흐름 불일치를 경감하고 필요한 유동성을 조달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집중해야 함을 시사함

- 2022년의 경험은 2012년 절판마케팅을 통해 대규모로 판매된 저축성보험의 현금흐름 유출이 예견된 가운데, 신계약 성장 둔화와 예상치 못한 금리 급등이 결합하여 해지패널티가 적은 저축성보험과 퇴직연금에서 지급보험금이 급증할 수 있음을 보여줌

○ 먼저, 현금흐름 불일치는 금리(ALM)리스크 강화와 대량해지, 대재해 등 다양한 유동성리스크 유발 요인을 반영한 K-ICS의 시행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나, 단기 현금흐름 모니터링이 개선되려면 RAAS와 위기상황분석의 재정비가 필요함

- 한편, K-ICS와 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는 대체투자 등 자산운용을 제약할 수밖에 없을 것임

○ 다음으로, 금리 급등 환경에서 국채와 같은 고유동성 자산의 처분은 개별 보험회사의 건전성 훼손은 물론 금융시장의 불안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의 자금조달, 특히 비상시 자금조달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며, 금융안정계정이 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함

- 비상시 자금조달방안으로 현행 법규에는 중앙은행을 통한 차입방식이 제시되고 있으나, 중앙은행은 채권안정펀드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공개시장운영을 통해서 개별 금융회사와 직접 거래하고 있어, 중앙은행 차입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음
- 이에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 내의 '금융안정계정' 설치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 이와 관련하여 금융안정계정의 자금 지원 형태에 RP 거래와 자본성증권 매매를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